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곽민*	학번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킬로나 Kelowna
파견대학	Okanagan College	기간	2017. 1. 22(일) ~ 2. 12(일)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저는 밴쿠버 옆에 킬로나 라는 작은도시에 있는 오카나간 컬리지로 파견되었습니다. 우선 대학크기가 우리학교만큼 크지는 않았지만 수업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이용하는데 있어서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딱 캐나다에 있는 대학이다! 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학교였습니다.
수업	<p>수업은 같이 파견된 학생들과 한 교실에서 캐나다 선생님께 ESL수업을 받았습니다. 수업시간에는 선생님께서 영어만을 사용하게 하셨고 주로 서로 서로에게 질문하는 방식을 통해서 다양한 표현을 직접 말로 해보게끔 하셨습니다. 매주 다양한 방식으로 파트너도 바뀌가면서 수업하셨고, 게임을 통해서 영어를 쉽게 느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p> <p>마지막 주에는 final presentation을 했는데 발표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survey였고 그래서 대학에 있는 학생들, 홈스테이 가족들에게 질문하는 모든 과정이 다 영어 연습에 한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주중에 계속해서 작은 발표들을 시키시면서 발표연습도 많이 했습니다.</p> <p>수업은 매일 하지 않고 화목에만 하였습니다.</p>
Activity	<p>매주 월,수,금에는 오전에는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액티비티를 하였습니다. 와인이 유명한 도시였기에 와인농장 투어, 스케이트, 컬링, 스키, 볼링 등등 스포츠 위주의 액티비티가 많았고 그래서 방수되는 장갑이나 바지 등이 필요했습니다. 출국전에 미리 준비해간 친구들이 대부분이었고 준비하지 못하더라도 홈스테이집이나 학교측에서 빌려주셨습니다.</p> <p>추가비용은 따로 들지 않았습니다.</p>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첫째 주와 둘째 주는 한국보다 따뜻한 날씨였습니다. 한국의 초겨울이나 늦겨울(초봄?)정도의 날씨였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주에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저는 두꺼운 신발이 없었는데 눈이 올 것을 대비해 부츠나 두꺼운 겨울용 신발을 가져갈 걸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온다는 수기를 본적이 있는데 비는 한 번도 오지 않았고 눈이 올 때도 캐나다 사람들은 우산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안전	6-7시만 되면 모든 상점들이 문을 닫고 9-10시쯤에는 다들 잠을 잡니다. 그래서 8시 이후에 돌아다닐만한 상황은 거의 없었고, 돌아다닌다고 하더라도 전혀 위험하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캐나다 사람들이 대부분 다 친절하여서 길을 잃거나 하더라도 차를 세우고 알려줄 정도입니다.
숙소	홈스테이를 이용하였고, 제가 갔을 때는 홈스테이 학생인 저와 홈맘 그리고 홈대디 이렇게 세명이 지냈습니다. 말도 자주 시켜주시고 항상 저의 의견을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노부부의 집으로 배정이 되었는데 두분다 일을 안하시기 때문에 항상 저에게 관심을 가지셨고 저녁식사할 때는 하루의 일과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편이셨습니다. 생활하는데 불편함은 거의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식사	아침은 주로 토스트나 시리얼 등을 먹었고 점심은 도시락을 싸주셨습니다. 보통 도시락은 전날 저녁에 음식이 남으면 그것을 싸주시고 음식이 남지 않거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샌드위치를 싸주셨습니다. 저녁은 주로 고기나 파스타, 해산물을 먹는 편이고 제가 머물렀던 집은 일주일에 3번 정도 와인을 곁들였습니다.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친구들과 외식을 했는데 물가가 비싸다 보니 그렇게 자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한국음식이 그리워졌습니다.
교통	대부분의 가정이 차를 적어도1개 이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발달해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학교까지 가까운 편이어서 버스를 타고 10정도 이동했고 날씨가 좋을 때는 걸어다녔습니다. 교통비는 한번에 2.5달러였는데 학교에서 패스권을 줬기 때문에 교통비에 돈이 들지 않았습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및 여행자보험	약 1,500,00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현지유심비용	약6만원	
개인 생활비	4-50만원	외식비, 기념품비 기타등등
합계	약200만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저희의 경우 홈스테이 정보를 출국3일전에 받아서 미리 연락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미리 메일을 주고 받으면 그 집에서 꼭 지켜야 할 규칙이라던가 이런것들을 알아 갈 수 있어서 당황하는 일은 적을것입니다. 또한 처음에는 음식들이 맛있고 신기하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면 맵고 짠거 매우 먹고싶습니다. 현지에 한국음식점이 있기는 하지만 캐나다 사람들 입맛에 맞춰진 음식점이 많다고 하니 라면과 핫반 두둑히 가져가세요.

저희 팀의 경우 한국에서 미리 유심칩을 구입해서 간 학생들이 많았는데 현지에서도 구입할 수 있지만 더 비용이 비싸고 복잡하다고 합니다. 미리 준비해서 가시는걸 추천합니다.

홈스테이 선물 준비할 때는 한국과자 같은거 좋아하십니다. 아니면 한국적인 인형이나 그런거 사가세요. 젓가락 같은거는 캐나다사람들도 엄청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6. 본인 소감 및 평가

처음에는 3주 동안 영어가 어떻게 늘까 생각하며 그냥 놀다와야지 하는 생각으로 출국을 했는데 마트에 가서 뭐 하나를 살려고 해도 영어를 써야하고, 어디를 찾아가려고 해도 영어를 써야하고, 친구들이랑 쉬는시간에 얘기할 때나 카카오톡을 할 때 말고는 정말 하루 종일 영어를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리스닝이나 스피킹에 있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전보다 꽤 향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물론 영어실력도 실력이지만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나라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전에는 체감하지 못했던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단기어학연수를 교환학생을 가기 위한 전단계로 생각을 했었는데, 짧은 시간 다녀오고 정말 더 넓은 세상에서 내가 보고 느껴야구나 생각이 들었고, 꼭 교환학생을 가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한번더 다녀오고 싶었지만, 기파견자는 다시 갈 수 없다는 것은 좀 아쉬운 사실입니다. 저는 제 친구들에게도 기회가 되면 꼭 다녀오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캐나다의 흔한 식료품점 save on foods



정말 예쁜 오카나간 호수에 수업 끝나고 친구들과 놀러갔던 사진입니다.



액티비티 끝나고 로컬음식 푸틴을 먹으러 갔을 때입니다.



저희가 다녔던 오카나간 컬리지입니다.



둘째주 액티비티 스키장 사진입니다.



눈이 많이 온 후 캐나다 사진입니다.